

전남도, 정부에 인공지능·조선업 자동화 등 국고 건의

해남 솔라시도·영암 대불산단 중심 전력 인프라 반영 HD현대삼호 현장방문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에 요청

전남도가 재생에너지 기반 인공지능 산업과 조선업 자동화 전환을 축으로 한 대형 국고사업 확보에 나섰다. 해남 솔라시도와 영암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와 제조 혁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2027년 정부예산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전남도는 6일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이 해남 솔라시도와 영암 HD현대삼호를 방문해 산업 현장에 점검하고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재생에너지 허브와 데이터센터 예정지, 조선업 자동화 전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솔라시도에서는 기업도시 조성 현황과 함께 국가 AI 컴퓨팅센터 예정 부지, 태양광 발전단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이 집중적으로 점검됐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대규모 재생에너

지 기반 전력 공급이 가능한 입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AI 산업 확장과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수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RE100 실현이 가능한 산업 단지로서 경쟁력을 부각했다. 전남도는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핵심적으로 요청했다. 총사업비 1조1943억원 규모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7년 국비 493억원 반영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했다. 이어 조용범 실장은 영암 대불산단 내 HD현대삼호를 찾아 조선업 자동화 공정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지능형 용접 로봇과 야드 자동화 시스템 등 디지털 전환 기반 공정이 시연됐다. 전남도는 조선업 인력 감소와 글로벌 경

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AI와 로봇을 접목한 제조 혁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AI 자율운영 조선소 혁신거점 구축' 사업을 제안하고 2027년 핵심 기술개발비 150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대불산단과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24시간 자율운영 생산체제와 지능형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총사업비는 3000억원 규모로 계획됐다. 전남도는 두 핵심 사업과 함께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구축 실증,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 버 재배능가 퇴적연금 제도 도입 등 주요 국고사업도 병행 건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분권 강화와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도 포함됐다.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현장 방문을 통해 중앙부처가 전남 산업 기반에 애로를 직접 확인한 계기가 됐다"며 "AI와 재생에너지, 조선업 자동화 등 핵심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여수세계세박람회 종합대책 점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6일 2026여수세계세박람회 진도지구 주행사장 현장을 방문. 주요시설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청

광주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안 통과 촉구

광주시청사·전일빌딩245 외벽에 대형 현수막 설치 강기정 "오월광주, 대한민국의 심장"···7일 국회 방청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역사적 결단을 촉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는 7일 헌법 전문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앞두고 시청사와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외벽에 5·18 정신 헌법 전문 개정안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6일 밝혔다. 현수막에는 3·1운동과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 및 5·18의 민주이

념을 계승하고'라는 개정안 문구를 담았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통해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는 메시지를 나타냈다. 강기정 시장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중단 없이 전진시켜겠다는 약속"이라며 "광주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이 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대한민국이 더 큰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과 5·18 공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모자회)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찾아 헌법전문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방청할 계획이다. 국회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며,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

상 찬성으로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6월 3일 국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역산하면 10일까지는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로 현역 의원 9명이 사퇴하며 현재 재적 의원 286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1명이다.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에서 12명이 찬성 표결을 해야 개헌안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번 개헌안에 당론 반대 중이어서 처리는 불투명하다. 양민규 기자 yang00@gwangnam.co.kr

도, 5월 농촌체험휴양마을 '곡성 가정마을' 선정

전남도는 철쭉과 장미가 피어나는 5월을 맞아 곡성 고달면의 '곡성 가정마을'을 5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했다. 곡성 가정마을은 지난 2002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시작 당시 전국 최초로 선정된 1세대 마을로, 방문객에게 자연과 농업 체험을 통해 농촌의 가치와 공동체 문화를 알리고 있다. 가정마을에서는 전통 손두부 만들기, 떡메치기, 도넛 만들기 등 먹거리 체험과 심전강변 은어·다슬기 잡기 체험, 계절별 농작물 수확 체험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봄에는 뒷산 산책로를 탐방하며 고사리를 채취하고, 여름에는 복숭아 수확과 복숭아청 만들기를 즐길 수 있다. 가을에는 알밤·단감 수확을, 겨울에는 고추장 담그기를 통해 전통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마을 인근에는 심전강 산책로와 함께 곡성세계장미축제, 곡성기차마을, 곡성천문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어 1박 2일 이상 체류형 여행코스도 적합하다. 특히 5월 열리는 곡성세계장미축제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장미를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어 연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다. 마을에서 운영 중인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 예약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농촌체험관광 누리집(http://www.jnfarmtou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광양만권경제청, 순천 코스트코 입점 절차 지원

교통영향평가·실시계획 변경·대규모점포 등록 등 후속 절차 관리 2028년 말 개점 목표···1020억원 외국인투자·지역채용 80명 규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순천 선월지구 코스트코 입점을 위한 후속 행정 지원에 본격 나선다. 코스트코가 최근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부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 유치 단계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실제 개점까지는 교통영향평가와 실시계획 변경, 상권영향평가, 대규모점포 등록 등 여러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관계기관의 지원과 조율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6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난달 29일 선월SPC와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845번지 일원 4만6734㎡ 규모의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순천 신대지구와 맞닿은

선월지구 내에 위치해 있으며, 코스트코는 이곳에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과 주유소,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1020억원으로, 100% 외국인투자 방식이다. 고용 예정 인원은 250명이며, 이 가운데 80명은 지역에서 채용할 계획이다. 광양경제청은 부지 계약 이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인허가 절차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대형 할인매장 입점에 따른 차량 흐름, 주변 도로 여건, 진출입 동선, 주차 수요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선월SPC는 하반기 광양경제청에 실시

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광양경제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승인 절차를 지원한다. 코스트코는 이후 상권영향평가를 거쳐 순천시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신청하게 된다. 코스트코 순천점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2028년 말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으로, 전 세계 89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광명점 등 20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국내 매출은 6조5000억원, 고용 인원은 약 7500명 규모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부지 계약 체결로 투자 실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에 들어선 만큼 남은 행정 절차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며 "지역 고용과 거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국힘, 5·18정신 헌법 수록 당론 찬성을" 민행배 민심캠프, 개헌안 통과 당위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민행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민심캠프는 6일 논평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의힘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심캠프 대변인실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국회 본회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헌법에 새기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자 전남·광주·사·도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헌안 통과의 당위성을 거듭 밝혔다. 민심캠프는 "민행배 후보는 헌법 전문 명기를 통해 국민주권의 가치를 견고히 하고, 미래 세대에 민주주의 가치를 온전히 전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이는 진영 논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행배

민심캠프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선거운 출속 개헌'이라는 억지 논리로 발목을 잡으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며 "특히 이정현 국민의힘 통합시장 후보는 '의원 자율 투표'라는 타협안 뒤에 숨기 말고, 국민의힘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5·18 정신을 존중한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찬성 당론'을 채택하라"며 "헌법적 가치조차 부정하는 정당이 말하는 전남·광주 발전은 사·도민을 기만하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7일 누가 민주주의의 편에 서고 누가 역사의 죄인이 되는지 사·도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한병도 의원, 민주당 첫 원내대표 연임 "12월까지 국정과제 전광석화 입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사진)이 6일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내년 5월까지 후반기 국회 1년간 원내 전락을 지휘하게 된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원내사령탑으로 다시 선출됐다. 한 원내대표가 단독 임후보한 이번 선거는 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는 투표에 앞서 진행한 정권 발표에서 "전광석화와 같은 입법으로 국정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올해 12월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끝내야 한다. 지금이 끝판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이후엔 다시 비상입법 체제를 가동하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는 과감한 돌파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극대화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선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한병도

그는 또 "최우선 과제는 지방선거 승리"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태도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민주당의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 출신의 3선 중진인 한 원내대표는 86(1960년대생·80년대 학번) 운동권 출신 인사지만,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이 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처음 원내사령탑 자리로 오른 바 있다. 한 원내대표가 새 임기를 시작하며 당면 과제는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비롯한 원 구성 협상부터 6·3 지방선거 직후 본격화할 '조작기소' 특검법 및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의 조율 등이다. 이선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민주, 광산'서 계속

임 부위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살레시오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하이텔 1세대 IT 전문가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책 참모로 활동해온 친명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특히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을 거치며

이재명의 행정철학을 첨단기술에 접목해 왔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 상근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과 직접 호흡하며 AI 국가 전략의 뼈대를 세웠다. 민주당이 임 부위원장을 전라 공천하면 서 광산을 보궐선거의 대진표도 6파전으로 완성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이 단수공천을 받아 출마하며 조국혁신

당에서는 광주 출신 배수진 변호사를 후보로 내세웠다. 진보당에서는 전주전 전 광주 시의원이, 기본소득당에서는 신지혜 최고 위원이 후보로 나서며, 구본기 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편, 민중당은 이날 광주 광산읍과 함께 제주 서귀포,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군산·김제·부안 등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의 전략 공천을 단행했다.